

프로그램 진행개요

| | | | |
|-------|---|------|-----|
| 프로그램명 | 무등산의 숨은 보물, 규봉을 찾아서 | | |
| 목표 | 규봉을 탐방하며 자연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느끼고, 우리 역사와 문화의 숨결을 되새긴다. | | |
| 해설주제 | 전설이 깃든 규봉 | | |
| 해설재료 | 규봉의 경관, 지질, 역사·문화 | 소요시간 | 6시간 |

프로그램 진행순서

| 해설단계 | 해설단계 | 주요내용 | 준비물 | 소요시간 |
|-----------|-------------------|--|---------------------------|------|
| 만남 | 인사나누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나누기 - 무등산국립공원 소개 - 일정안내, 주의사항 전달 | 무선 마이크 구급 약품 | 0.5 |
| 주제별 해설 | 무등산의 숨은 보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봉과 규봉암의 유래 - 광석대의 지질이야기 - 풍화의 증거 삼존석 - 문바위 전설 - 석불암과 마애불 - 너덜경과 지공너덜 | 사진 자료 | 3 |
| | 도원마을과 도원계곡 이야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원마을의 유래 - 아픔을 간직한 도원마을 - 용소 전설 - 무등산 도원계곡 | | 2 |
| 마무리 | 느낌나누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느낌나누기 - 인사하기 | | 0.5 |

해설 시나리오

| | |
|-------|---------------------|
| 프로그램명 | 무등산의 숨은 보물, 규봉을 찾아서 |
|-------|---------------------|

| 해설주제 | 세부 시나리오 |
|--------------------------|--|
| 인사나누기 | <p>여러분, 안녕하세요?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자연환경해설사 ○○○입니다. 아름다운 무등산국립공원 도원지구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p> <p>무등산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화순군, 담양군에 걸쳐 있는 호남의 진산으로 2013년 3월 4일에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국민이 사랑하는 명산이 되었습니다. 해발고도 1187m의 ‘무등산’의 뜻은 등급을 매길 수 없는 산, 등급이 없는 온전한 평등이란 의미입니다.</p> <p>무등산은 입석대, 서석대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유명하지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아름다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무등산의 숨은 보물, 규봉을 찾아서 6시간 동안 국립공원을 탐방하실 텐데요, 모두 몸 상태는 어떠세요? 아프시거나 불편하신 분 계세요? 네, 모두 좋다고 하시니 다행입니다.</p> <p>탐방에 앞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해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구급약이 준비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말씀해주세요. 그럼, 천천히 출발하겠습니다.</p> |
| 무등산의 숨은 보물 - 규봉과 규봉암의 유래 | <p>규봉은 규석이 있는 봉우리로 무등산 정상에서 동남쪽에 위치합니다. 규봉의 한자는 ‘홀 규, 봉우리 봉’입니다. ‘규’는 왕이 제례(祭禮) 때 관복을 입고 손에 쥐는 옥으로 만든 홀로, 위 끝은 뾰족하고 아래가 세모나 네모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규’는 ‘모나 귀퉁이’를 의미하는데 옥처럼 밝고 길쭉하며 네모진 이곳의 주상절리대를 잘 표현한 이름입니다.</p> <p>이렇게 웅장한 주상절리대 아래 자리한 규봉암(圭峰庵)은 대한불교조계종 제21교구 본사 송광사의 말사로 절의 창건연대는 알 수 없으나 통일신라시대의 의상(義湘, 625~702)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합니다.</p> <p>전설에 따르면 의상대사가 전생에 이곳을 찾은 적이 있었는데 이승에서 다시 태어나 와보니 바위틈에서 흐르는 물이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음을 기이하게 여겨 절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 후 당나라로 유학을 갔다 귀국한 순응대사가 중창했다고 전합니다.</p> |

해설 시나리오

| | |
|-------|---------------------|
| 프로그램명 | 무등산의 숨은 보물, 규봉을 찾아서 |
|-------|---------------------|

| 해설주제 | 세부 시나리오 |
|--------------------------------|---|
| 무등산의 숨은 보물 - 규봉과 규봉암의 유래 | <p>통일신라 말의 도선(道詵, 827~898)국사는 이 절의 은신대에 앉아서 조계산의 산세를 살펴 송광사의 절터를 잡았고 고려 말의 보조국사 지눌(普照知訥, 1158~1210), 진각국사 혜심(慧諶, 1178~1234), 나옹선사 혜근(懶翁惠勤, 1320~1376)은 삼존석 등 절 주변의 웅장한 돌기둥에서 수도하여 득도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규봉암은 신라 · 고려시대의 고승들과 관련된 유서 깊은 수행도량입니다.</p> <p>조선시대에는 『신동국여지승람』에 ‘규봉암’이라고 하지 않고 ‘규봉사’라고 적힌 것으로 보아 고려 후기에는 상당한 규모를 갖춘 사찰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선 중기의 고경명(高敬命)이 지은 『유서석록(游瑞石錄)』에 의하면 당시만 해도 신라의 명필 김생(金生, 711~79)이 쓴 현판이 전해왔다고 합니다.</p> <p>그 뒤 폐허가 된 절을 조선 영조 때 중건했으나 6·25 한국전쟁으로 인해 다시 폐사가 되었다가 1957년에 주지 이한규가 새로 지었습니다. 이후에 정인(正因)스님이 머무르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p> <p>사찰의 가장 중요한 건물은 불전(佛殿)으로 불전에 모셔진 부처님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다릅니다. 대개 사찰에는 석가모니불을 모신 대웅전이 있는데 규봉암에는 대웅전 대신 관세음보살을 모신 관음전이 있습니다.</p> <p>관세음보살은 모든 곳을 살피고 듣는 분으로 중생이 괴로움을 겪을 때 그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음성을 듣고 큰 자비로 구제하는 보살입니다. 모든 중생이 해탈할 때까지 자신은 성불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p> <p>이렇게 웅장하고 신비로운 풍경 속에 있노라면 세상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화로워지는데 이 또한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아닐까합니다.</p> |
| | 무등산의 여러 탐방코스 중 규봉에 오르면 광석대, 삼존석, 지공너덜을 탐방하며 무등산이 생겨난 과정을 지질학적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

해설 시나리오

| | |
|-------|---------------------|
| 프로그램명 | 무등산의 숨은 보물, 규봉을 찾아서 |
|-------|---------------------|

| 해설주제 | 세부 시나리오 |
|--------------------------------|--|
| 무등산의 숨은 보물 - 광석대의 지질 이야기 | <p>규봉암을 병풍처럼 둘러싼 거대한 돌기둥을 주상절리대라고 합니다. 주상절리대는 무등산의 큰 특징으로 세계적으로 해발고도 1,000m의 산지에 이렇게 거대한 주상절리대가 형성된 것은 매우 드물어 그 가치가 높습니다.</p> <p>규봉암 일대의 주상절리대를 광석대(廣石帶)라고 부르는데 입석대, 서석대와 더불어 무등산 3대 석경입니다. 광석대는 화산활동으로 생겼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8700만~8500만 년 전 중생대 백악기에 한반도는 화산활동이 격렬한 불의 나라였습니다. 무등산은 백두산, 한라산처럼 화산이었고 대폭발을 동반한 대규모 화산활동이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곳을 비롯한 무등산의 주상절리대는 그 때 세 번의 화산 폭발로 생겨난 지형입니다.</p> <p>광석대는 화산이 폭발할 때 분출된 매우 뜨거운 화산재와 바위 파편 등의 화산쇄설물이 수백m 두께로 쌓여 있다가 굳어진 석영안산암질응회암입니다. 분출되어 쌓인 화산재와 화산쇄설물은 높은 온도와 압력에서 녹은 뒤 대량으로 산지의 지하에서 천천히 식으며 수축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피가 급격히 줄어들며 수직으로 균열이 생겼는데 암질의 성질이 균일하고 냉각 시간과 속도가 적당하여 단면이 같은 표면적에서 최적의 면적을 차지하는 6각형에 가까운 주상절리가 잘 발달했습니다.</p> <p>광석대는 무등산 주상절리대 중 가장 규모가 큰데 다른 주상절리대보다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어 기둥의 너비가 큰 거대한 돌기둥이 되었습니다. 해발고도 약 850m에 위치하며 규봉암을 둘러싼 암괴지역의 폭이 약 130m, 5~6각형의 절리면의 길이는 2~5m, 최대 너비 약 7m, 높이 약 30~40m로 세계적으로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등 다른 지역의 주상절리대의 경우 바위의 크기가 수십cm인 것에 비하면 광석대의 크기는 정말 경이롭습니다.</p> <p>규봉암 입구에 우뚝 솟은 세 개의 돌기둥을 삼존석(三尊石)이라고 합니다. 삼존석은 도선국사(道詵國師)가 이름을 지었다고 전해지는데 부처의 다른 이름인 여래, 자비의 화신인 관세음보살, 미래의 부처님인 미륵보살의 이름을 따라 여래존석(如來尊石), 관음존석(觀音尊石), 미륵존석(彌勒尊石)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관음존석은 어느 때부터인가 윗부분이 끊겨져 누워 있습니다.</p> |

해설 시나리오

| | |
|-------|---------------------|
| 프로그램명 | 무등산의 숨은 보물, 규봉을 찾아서 |
|-------|---------------------|

| 해설주제 | 세부 시나리오 |
|------------------------------------|---|
| <p>무등산의 숨은 보물 - 풍화의 증거 삼존석</p> | <p>미륵존석의 규봉암 쪽 면에는 ‘同福守 金基中(동복수 김기중)’이라는 글자가 세로로 새겨져 있는데 김기중은 경성방직, 동아일보, 고려대학교를 창립한 인촌 김성수(仁村 金性洙)의 양아버지로 한말에 동복현감(1902.1.28.~1905.9.20)으로 재임 중 이곳에 오른 것을 기념하기 위해 새긴 것입니다.</p> <p>두 개의 거대한 돌기둥 위에 누가 돌은 얹어 놓은 것 같은 삼존석은 기나긴 지질 시대에 어떤 기후환경에 영향을 받았는지 알 수 있게 합니다. 화산폭발로 생겨난 무등산의 주상절리대들은 약 6,500만 년 전 신생대에 화산활동이 잠잠해지고 매우 고온다습한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되었습니다. 이후 약 250만 년 전 신생대 제4기에 들어서 한랭과 온난이 반복되는 극심한 기후환경의 변화는 주상절리대와 너덜지대로 대표되는 무등산의 지형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신생대 제4기 중 1만 년 전 마지막 빙하기인 뷔름(Wurm)의 극성기에 매우 한랭건조한 환경에서 주상절리대의 절리와 균열 사이의 물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열고 녹으며 주상절리대는 서서히 깨지고 조각난 암석들이 떨어지면서 현재의 돌기둥 위에 걸쳐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풍화작용이 계속되면 무너져 내려 너덜이 됩니다.</p> <p>삼존석은 풍화의 증거이자 주상절리대가 너덜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생생한 현장입니다. 이렇게 화산활동과 기후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형형성 과정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흔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귀한 자연유산입니다.</p> <p>웅장하고 신비로운 광석대는 무등산의 주상절리대, 너덜지대 등과 함께 2014. 12. 10. 국가지질공원이 되었으며, 세계적으로 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8. 4. 12. 137번째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되었습니다. 또한 2018. 12. 20. ‘무등산 규봉 주상절리와 지공너덜’은 명승 제114호로 지정되었습니다.</p> |
| | <p>삼존석을 문바위라고도 하는데 문바위에는 임진왜란 때의 의병장 충장공 김덕령 장군의 전설이 깃들어 있습니다. 김덕령 장군은 어려서부터 용감하고 힘이 장사였으며 말타기와 활쏘기를 좋아해 무등산을 오르내리며 무술을 갈고닦아 용맹한 의병장이 됐지만 간신의 모함으로 옥사했습니다. 그래서 무등산을 중심으로 그에 관한 일화가 많이 숨어 있습니다.</p> |

해설 시나리오

| | |
|-------|---------------------|
| 프로그램명 | 무등산의 숨은 보물, 규봉을 찾아서 |
|-------|---------------------|

| 해설주제 | 세부 시나리오 |
|---------------------------|---|
| 무등산의 숨은 보물 - 문바위 전설 | <p>김덕령 장군이 이곳에서 말달리기를 익히던 때의 일입니다. 아끼던 백마를 타고 문바위에 올라서 백마에게 ‘내가 큰일을 하려면 말부터 잘나야 하는 법이다. 지금부터 내가 활을 쏘고 저 청궁마을 건너 바위까지 달리겠다. 이 화살보다 네가 먼저 도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네 목을 치겠다.’ 고 말하니 백마 또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p> <p>청궁마을 건너 바위는 살바위라고 하는데 화순군 동면 마산리(馬山里)와 청궁(靑弓) 마을의 중간 지점에 있는 ‘살밭골’이라는 골짜기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살바위까지는 20리쯤 되는데 김덕령 장군이 활을 쏘자마자 백마는 네 발굽을 모아 번개 치듯 눈 깜짝할 순간에 청궁의 살바위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김덕령 장군이 도착해보니 화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p> <p>화살이 먼저 와 땅에 떨어져 없어진 것으로 생각한 김덕령 장군은 약속한 대로 칼을 뽑아 백마의 목을 쳤습니다. 순간, 뒤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나더니 그제야 화살이 날아와 바위에 맞고 말 머리와 함께 땅에 툭 떨어졌습니다.</p> <p>김덕령 장군은 화살과 백마의 머리를 들고 자기의 경망과 조급함을 후회하며 한없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뒤 말의 무덤을 만들어주고, 그때부터 이 바위를 화살이 떨어진 곳이라 하여 ‘살바위’ 라 했다고 전합니다.</p> <p>이 바위에는 지금까지 말발굽의 흔적이 남아 있고 마을 이름 또한 말이 죽었다고 하여 마살리(馬殺里)라 했습니다. 그러나 뒷날 사람들이 마을 이름에 살(殺)자가 있어 흉하다고 하여 말무덤이 있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마산리(馬山里)로 바꾸어 불렀다고 합니다.</p> |
| | <p>규봉암에서 장불재 방향으로 가는 길에 지공너덜을 지나는 윗길을 따라가면 암벽을 배경으로 한 석불암(石佛庵)이 있습니다. 현재의 건물은 한국전쟁 때 불타버린 것을 최근 다시 지은 것으로 작은 민가형 건물입니다.</p> |

해설 시나리오

| | |
|-------|---------------------|
| 프로그램명 | 무등산의 숨은 보물, 규봉을 찾아서 |
|-------|---------------------|

| 해설주제 | 세부 시나리오 |
|---------------------------|--|
| 무등산의 숨은 보물 - 석불암과 마애불 | <p>석불암에는 바위에 새긴 마애여래좌상(磨崖如來坐像)이 있는데 좌우 옆면에는 두 종류의 명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오른쪽은 시주 기록으로서 1933년에 담양읍에 거주하는 국영현 일가에 관한 것이고, 왼쪽은 무등산 소림정사 창건 대시주 기록으로서 1935년에 담양읍의 국상현 일가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밝히는 내용입니다.</p> <p>마애불(磨崖佛)은 1933년에 조성되었고 이를 토대로 1935년에 소림정사라는 암자를 건립한 것입니다. 비록 근대의 작품이지만 조선시대 후기의 불상양식과 일제 암흑기까지 계승되는 양식의 변천과정을 추찰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서 2007. 01. 05. 화순군 향토문화유산 제29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또 마애불 옆에 ‘나무산 왕위’란 산신을 상징하는 문자를 새겨놓았는데 이것은 1930년대 당시 불교와 산신신앙이 서로 융합되는 민간신앙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p> |
| 무등산의 숨은 보물 - 너덜경과 지공너덜 | <p>규봉과 장불재 사이에 있는 지공너덜은 덕산너덜과 함께 무등산의 대표적인 너덜지대입니다. 너덜 또는 너덜경은 ‘돌이 많이 흩어져 깔려 있는 비탈’로 사투리 같지만 표준어입니다.</p> <p>신생대 제4기에 지구는 빙기와 간빙기가 주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반도의 기후는 매우 춥고 건조하여 높은 산의 경사진 곳에서는 물리적(기계적) 풍화작용이 활발했습니다. 열고 녹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기둥 모양의 바위들이 떨어져 나와 땅 속에 묻혀 경사면을 따라 이동하여 너덜경을 형성했습니다. 풍화작용으로 무너지고 쌓인 수많은 큰 바윗덩이가 산비탈을 덮은 지공너덜은 무등산 남쪽 경사면에 산마루에서부터 골짜기까지 길게 뻗어 있습니다. 암석의 크기는 보통 0.5~1m이나 4~5m에 달하는 커다란 것도 있습니다. 지공너덜을 이루고 있는 암석의 표면은 거칠고 대체적으로 검은색을 띠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 동안 풍화를 받아 변질되면서 색이 검게 변하는 돌이끼 라이켄이 넓게 퍼져있기 때문입니다.</p> |

해설 시나리오

| | |
|-------|---------------------|
| 프로그램명 | 무등산의 숨은 보물, 규봉을 찾아서 |
|-------|---------------------|

| 해설주제 | 세부 시나리오 |
|------------------------------|--|
| 무등산의 숨은 보물 - 너덜정과 지공너덜 | <p>전설에 따르면 지공너덜은 옛날 인도의 승려 지공대사가 이곳에서 석실을 만들고 수행할 때 법력으로 억만 개의 돌을 깔아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지공대사의 제자 나옹선사가 스승의 이름을 따라 ‘지공너덜’이라고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지공너덜을 지날 때에는 바위만 밟고 가야 하는데 법력으로 깔아놓아서인지 어느 것을 밟아도 덜컹거리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또 보조국사가 좌선수도 했다는 보조석굴은 큰 바위가 저절로 지붕을 이루어 굴이 되었는데 그 모습이 지공너덜을 더욱 신비롭게 합니다.</p> <p>지공너덜에는 김덕령 장군에 대한 전설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지공너덜의 수많은 돌은 원래 상봉 근처에 있는 바윗덩이였는데 김덕령 장군이 하루아침에 깨뜨려 소쿠리에 담아 내던져서 너덜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p> |
| 도원마을 이야기 | <p>도원계곡의 물줄기는 무등산에서 발원하여 도원계곡을 적시고 동북호와 주암호를 지나 섬진강으로 흘러 남해에 다다릅니다. 유량이 풍부하진 않지만 예로부터 무등산을 터전으로 살아온 사람들과 야생동식물의 젖줄이 되었습니다.</p> <p>이 계곡은 옛날 차가 없을 때 화순과 광주 사이의 중요한 길목이었습니다. 화순이서와 동북 일대에 살던 사람들은 계곡 길을 따라 장불재를 넘어 장을 보러 광주도 가고 과거시험을 보러 한양도 갔습니다.</p> <p>계곡 아래에는 무등산 자락에 감싸여진 작고 아름다운 도원마을이 있습니다. 300여 년 전 남씨와 문씨가 모여 살며 형성된 도원마을은 원래 장북동마을이었습니다. 장북동마을은 형태가 노루의 배와 비슷하다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상장북마을과 하장북마을로 이루어졌는데 후에 이를 합하여 신선이 산다는 무릉도원의 의미로 도원마을이라고 바꾸었습니다.</p> <p>화순과 광주의 길목에 위치한 장북동마을은 장불재를 넘나드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질 않아서 많은 주막과 쉼터가 있었던 활기찬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100가구 정도 거주했던 큰 마을이었던 장북동마을은 6·25 한국전쟁 때 인민군이 숨어들자 한국연합군이 불을 질러서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후에 전쟁으로 마을을 떠났던 주민 일부가 돌아와 다시 살면서 지금의 도원마을이 되었습니다.</p> |

해설 시나리오

| | |
|-------|---------------------|
| 프로그램명 | 무등산의 숨은 보물, 규봉을 찾아서 |
|-------|---------------------|

| 해설주제 | 세부 시나리오 |
|----------|--|
| 도원마을 이야기 | <p>도원계곡에는 비록 지금은 대나무 숲이 되어 아무도 살지 않지만 마을 집터, 돌담장 등 옛 마을의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아름다운 경치와 아늑한 분위기를 지니고 있는 도원마을은 역사와 자연이 한데 어우러지는 무등산의 아름다운 명품마을입니다.</p> |
| 도원계곡 이야기 | <p>도원계곡을 따라가다 보면 용이 살았다는 용소가 나옵니다. 400여 년 전 어느 초여름에 광풍과 더불어 소나기가 내리더니 구름 속에서 백룡이 못으로 내려왔습니다. 비와 구름이 사라진 뒤 마을사람들이 못에 가보니 용이 헤엄치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용신제를 드리니 해마다 풍년이 들었고 마을사람들은 태평가를 불렀습니다. 모든 농민들은 이 못 가기를 금기하고 여기를 지나는 사람들은 누구나 “용왕님네”하고 물을 바라보며 허리를 굽혀 절을 올렸습니다.</p> <p>그 뒤 어느 날 동북현감(同福縣監)이 비연이라는 기생을 데리고 무등산 규봉암으로 소풍을 가다 이곳에 와서 놀았습니다. 그런데 비연이 높은 바위 위에 올라 칼춤을 추다 갑자기 현기증을 일으켜 칼을 쥔 채 못으로 떨어졌습니다. 노한 백룡은 소리를 지르며 요동을 쳤고 갑자기 천둥이 치고 소나기가 내리자 동북현감은 어느 민가 안방으로 숨어버렸습니다. 뒷날 사람들이 못에 가보니 백룡은 오간데 없고 비연의 시체만 흙탕물에 떠있었습니다. 그 뒤부터 가뭄이 들면 마을 사람들은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내며 비가 오기를 바랐습니다. 그때부터 이 못을 용이 살다갔던 곳이라 하여 용소(龍沼)라 하였다 합니다.</p> <p>도원계곡의 원래 이름은 영신(靈神)계곡입니다. 계곡이 신령스럽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무등산 산신의 기운을 받기 위해 무당들이 기도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용소 근처의 널따란 바위가 층층이 놓아져 있는 너럭바위에는 가끔씩 무당의 흔적이 보이곤 합니다. 무릉도원처럼 아름답고 평화로운 도원계곡을 걷다보면 정말로 무등산 산신을 만날지도 모릅니다.</p> |

해설 시나리오

| | |
|-------|---------------------|
| 프로그램명 | 무등산의 숨은 보물, 규봉을 찾아서 |
|-------|---------------------|

| 해설주제 | 세부 시나리오 |
|------|---|
| 마무리 | <p>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무등산의 숨은 보물인 규봉과 그 아래 펼쳐진 아름다운 자연을 탐방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신비하고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걸음을 멈춘 곳곳마다 스며있는 전설과 역사의 향기가 무등산을 더욱 아름답고 소중하게 합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무등산이 멀리 있지 않고 우리의 삶 바로 가까이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자연과 역사, 문화가 어우러진 규봉이야말로 진정한 무등산국립공원의 보물이 아닐까합니다. 오늘의 여운을 오래도록 간직하시고 삶의 여유가 필요하실 때 다시 무등산의 보물을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무등산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으니까요.</p> <p>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p> |

| |
|-------|
| 9쪽/9쪽 |
|-------|